

보조동사 “어 놓다”의 의미 연구

李京保*

1. 서론

기존의 논고에서는 보조동사 “어 놓다”는 상 의미와 양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 상 의미로써는 “保有” “持續” “維持”라고 했다. 또한, “어 놓다”는 양태 의미로써는 “대비”의 의미 기능을 지니고 있다고 했다. 예를 들면, (1)의 “어 놓다”는 “포도주 한 병이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사전에 미리 준비한다는 “대비”의 의미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1)그런 다음 그는 미리 준비한 포도주 한 병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슬픈 시인의 바다)

이러한 상 의미와 양태 의미는 보조동사 “어 두다”와 동일한 의미 기능이다. 다시 말하면, 기존의 논고에서는 보조동사 “어 놓다”의 의미 기능을 “어 두다”와 같이 동일한 것으로 다루어져, 두 보조동사의 차이점에 대해 거의 거론되어 오지 않은 것 같다.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는 교재, 참고서에서도 “어 놓다”가 “어 두다”와 동일한 것으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상 “어 놓다”가 “어 두다”로 바꿀 수 없는 문장들은 적지 않다. 따라서 외국인의 한국어 학습자가 “어 놓다”의 의미 용법을 습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음의 두 문장을 보자.

(2)책꽂이에 사전을 오랫동안 올려 {??놓았다/두었다}

(3)죽어가는 사람을 일단 살려 {놓아야지/*두어야지}

두 보조동사가 교체할 수 없는 문장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두 보조동사의 의미 기능이 동일한 것인지 의심할 필요가 있다. 같은 의미 기능을 나타내는 보조동사라면 상호 교체가 가능해야 되는 데, (2)-(3)의 문장과 같이 “어 두다”는 가능하나 “어 놓다”는 부자연스러운 경우가 있거나, 그 반대로 “어 놓다”는 가능하나 “어 두다”는 부자연스러운 경우가 있다. 이는 두 보조동사의 의미 기능에 차이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집한 용례 약 600개를 대상으로 “어 놓다”의 의미 구조를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¹ 그리고 “어 놓다”의 의미와 본동사의 의미와의 관련성을 밝힘과 동시에 “어 놓다”의 의미의 전체상을 밝히려 한다.

* 高雄大學東亞語文學系助理教授

¹본고의 고찰에 쓰인 용례는 “21세기 세종계획”의 말뭉치에서 검색한 전자 파일이다.

http://sejong.or.kr/gopage.php?svc=list_uarea.userarea 자세한 작품명은 본고의 마지막을 참조할 것.

2. 선행연구

기존의 연구에서는 보조용언 “어 놓다”는 상(에스펙트)의 의미와 양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다. 상 의미로서 논고에 따라 “維持” “保有” “持續” “지남”이라는 용어가 쓰여졌는데, 이들은 같은 상 의미에는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² 양태 의미로서는 “대비”라고 했다. 이러한 상 의미와 양태 의미는 보조용언 “어 두다”와 동일한 의미 기능이다. 다시 말하면, 기존의 논고는 보조용언 “어 놓다”를 “어 두다”의 의미 기능과 동일한 것으로 다루어져 왔다. 이 장에서는 ‘어 놓다’에 대해 비교적 자세하게 논의된 연구를 소개하고 다음 장에서는 선행 연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1) 손세모돌(1996)

손세모돌(1996)은 보조동사 “어 놓다”의 기본 의미는 “어 두다”와 같이 ‘완결된 동작의 결과 지속’이라는 상 의미라고 했다. “어 놓다”와 “어 두다”에서는 일부 선행 동사와의 결합 차이든지 부사어와의 어울림에 차이를 보이지만 이런 것은 근본적인 의미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리고 손세모돌(1996)은 문맥 의미로써 “미리 준비하다”와 “바탕으로 하여” “일을 끝나고” “주어의 결과 유지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손세모돌(1996)은 상 의미를 기본 의미로 두고, 문맥 의미는 상 의미 즉, “결과 지속”이 어떤 일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연상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 박선옥(2005)

박선옥(2005)은 보조동사 “어 놓다”는 “어 두다”와 동일한 상 의미와 양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했다. 상 의미로서는 어떤 상태나 상황을 그대로 보존하거나 변함없이 계속하여 지탱이라는 ‘維持’로 설정해, 본동사의 의미가 많이 남아 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어 놓다”와 “어 두다”의 차이점으로 지속의 시간의 장단을 지적했다. 즉 “어 놓다”가 “어 두다”에 비하여 비교적 ‘짧은 시간의 지속’이고 “어 두다”는 ‘긴 시간의 지속’이라고 하며 이러한 차이는 본동사 ‘놓다’와 ‘두다’의 의미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또한 박선옥은 다음과 같은 지적을 하고 있다.

주어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대상물의 상태가 지속되는 지에 대해서 ‘놓다’는 중립적인 데 비해 ‘두다’는 상태 지속의 의미가 있는 차이점이 있다.(p.165)

²박선옥(2005)은 각 보조동사의 의미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고 있다. “어 놓다”의 의미에 대해 정리한 것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보유”:최현배(1994), 이주행(1976), 柳相(1980), 고영근 남기심(1993)

“맹목적보유”: 김명희(1984:43-46)

“지속”:이관규(1992)

“지남”:김석득(1992)

이처럼, 박선옥(2005)은 “어 놓다”는 ‘짧은 시간의 지속’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면서 상태가 지속되는 지에 대해서 중립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양태 의미로서 “대비”의 의미를 지적하고 있고, 이 또한 “두다”와 동일한 이미 기능을 지닌다고 했다.

(4)식사 준비를 해 놓았다. /보고서를 작성해 놓았다. (박선옥 2005: 162)

위의 “어 놓다”는 ‘식사 준비를 했다.’ ‘작성했다’보다 그 행위가 다른 어떤 일에 대하여 미리 대비한다는 의미가 더 있다고 했다.

3)이기동(1979)

이기동은 위에서 본 논고와는 달리 “어 놓다”를 “어 두다”와 다른 의미 기능을 가진다고 했다. 이기동은 “어 놓다”를 “완료”라는 시상 의미를 나타낸다고 했다. 이기동이 말하는 “완료”는 “상태 변화”라는 뜻으로 쓰고 있으며, “어 두다”와 비교하는 곳에서 “어 놓다”는 “상태 변화”, “두다”는 “상태 유지” 의미를 가진다고 했다. 완료와 상태 변화를 동일하게 보는 견해에는 토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기동은 “어 놓다”가 나타내는 개별적인 의미간의 관련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 점은 주목할 만하다.

4)油谷辛利 (1979)

油谷는 “어 놓다”는 “어 두다”와 더불어 일본어의 보조동사 “te-oku (ておく)”로 번역된다고 했다. 그리고 두 보조동사가 나타내는 의미는 “상태 변화”와 “상태 지속”이라는 상 의미의 차이가 했다. 이 점은 이기동(1979)과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油谷는 이 둘의 차이는 “어 놓다”와 “어 두다”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행 동사의 의미에 의해 생겨난 것이라 했다.

5)李美淑 (2002)

일본어의 보조동사에는 국어의 보조동사 “어 놓다”와 관련이 깊은 보조동사가 있어 일한 대조 연구에서 “어 놓다”가 거론되어 왔다. 李美淑(2002)은 일본어의 “te-oku (ておく)”는 한국어의 “어 두다”와 “어 놓다”가 대응한다고 했다.

(日) te-oku 의 의미 { a 대비³+ 「지속」 --- (韓)해 두다
 b 대비+ 「완료」 --- (韓)해 놓다

6)許宰碩 (2007)

일본어의 보조동사 “te-oku (ておく)”에는 “어 놓다”와 “어 두다”가 대응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 3 종류의 보조동사는 “대비”(준비)를 나타내는

³ “대비”는 李美淑 (2002)의 “もくろみ性”를 필자가 번역한 것이다.

점에 동일하다고 했다. 이 점에 대해서는 李美淑 (2002) 과 같은 견해이다. “어 놓다”가 “어 두다”와의 다른 점으로서 “어 놓다”는 [-의도적]인 경우에도 쓰인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許宰碩은 “어 놓다”를 “대비”의 의미로 쓰인다고 하며 [-의도적]인 용법을 지적하고 있다. “대비”는 의도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許宰碩의 견해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 선행 연구의 재검토

이기동은 1979 년에 이미 “어 놓다”는 “어 두다”와 다른 용법을 나타낸다고 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논고에서는 “어 놓다”는 “어 두다”와 동일한 의미 기능을 나타낸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지적해 온 상 의미와 양태 의미로 해석이 안 되는 혹은 해석하기 어려운 문장을 찾아내어 기존의 연구의 문제점을 밝히고자 한다.

3.1 “대비”를 나타낸다는 견해의 문제점

박선옥(2005), 李美淑 (2002) , 許宰碩(2007), 許宰碩(2009)등은 보조동사 “어 놓다”는 “대비”(준비)라는 양태 의미를 나타낸다고 했다. 즉, 이들은 “어 두다”와 동일한 의미 기능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기존의 논고에서는 “어 놓다”는 상 의미와 더불어 “대비”라는 양태 의미를 나타낸다고 했다. 다음의 문장을 보면 “어 놓다”가 사전에 미리 준비한다는 의미로 읽을 수 있다.

(5)놓아 여기에 상인들이 앉아서 상품의 일부를 손님에게 보이기 위해 진열해 놓는다.

(함께 걷는 이 길은)

(6)닿기 편하게 세면대 위에 올려놓고 수건과 빗도 그 옆에 갖다 놓고 트렁크 위에 앉아 있는 미란을 불렀다. (기차는 7시에 떠나네)

그러나, “어 놓다”의 전반적인 문장이 이러한 “대비”성을 강하게 느끼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어 놓다”가 직접적으로 “대비”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라 생각된다. (5)-(6)문장이 “대비”를 강하게 느끼게 하는 것은 목적절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적절은 “어 놓다”의 선행 동사가 意志동사이기에 동반할 수 있는 것인데 목적절 동반의 여부는 “어 놓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意志동사라면 동반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어 놓다”가 “대비”에 대하여 중립적이라고 간주한다. 다음의 1)-4)에서 보는 문장들은 “어 놓다”가 “대비”에 대해 중립적이라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문장들이다.

1) [-유정물]의 주어

“대비”는 사전에 무언가를 준비한다는 의미이기에 주어가 유정물에 제 되어야 한다. 그런데, 수집한 용례 안에는 다음과 같이 무정물인 문장

있다.

- (7)이러는 동안 郊外의 強烈한 햇볕은 내 얼굴을 形편 없이 만들어 놓았다. (기다리는 불안)
- (8)바다가 차츰차츰 나를 바꾸어 놓고 있어. (슬픈 시인의 바다)
- (9)이해가 감직한 일이지만, 그러한 행위 자체가 바로 왜식 사고를 그대로 뒤집어놓은 것이다.(차 한 잔의 사상)

2) 부정적인 뜻 혹은 부정적인 뜻으로 쓰인 선행 동사

“대비”라는 것은 어떤 일을 실현하기 위해 화자가 이상적인 혹은 바람직한 행위를 미리 행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선행 동사로서 부정적인 뜻을 나타내는 동사를 선행 동사로 취하기 어렵다. 그런데, 다음의 용례에서 볼 수 있듯이 “어 놓다”의 선행 동사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다.

- (10)맞아 뒤질 개쌍놈아. 니가 내 인생 요 모양 요 꼴로 망쳐놓고 온전히 살아남을 줄 알았더냐, 어렵도 없다, 이놈아. (숨은 사랑)
- (11)아인데, 충격이 오죽 했겠어요. 경찰이 찾아와 온 집안을 쑥대밭으로 헤쳐 놓았더군요. (숨은 사랑)
- (12)혈압약 먹지 마시우. 내 말이 틀림없어라우. 액맥이한다고 누가 그 짓거리를 해 놓은 것이라니게요. 눈을 감은 채 이마를 잔뜩 찌푸린 표정으로 드러누워 있는 남편을(봄날 1)

(11)에서는 경찰이 어떤 목적을 갖고 행한 행위이겠지만, 화자는 그 행위를 바람직하지 않은 동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3) “고 말다” “어 버리다”의 후행 어미

대비를 나타내는 “어 두다”는 기본적으로 화자의 기대나 생각에 어긋남을 나타내는 “고 말다” “어 버리다”를 후행 어미로 취하기 어렵다. 그러나 “어 놓다”는 다음의 문장에서 볼 수 있듯이 “고 말다” “어 버리다”를 후행 어미로 취할 수 있다.

- (13)흥, 어쩐지 처음부터 좀 멍하게 생겨먹었다 싶었더니만 기어이 일을 저질러 놓고 말았군. (숨은 사랑)
- (14)고통을 위로 받기 위해서 오빠 같은 오강원에게 자신의 심경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말았다.(슬픈 시인의 바다)
- (15)말없이 냉찜질을 계속하고 있던 강욱이 문득 비닐봉지를 방바닥에 내려 놓아 버린다. 강욱의 표정은 새벽에 일어나 앉아 구차스럽게 냉찜질이나 하고 있는 (숨은 사랑)

4) “어 두다”의 후행 어미

“어 놓다”는 “어 두다”를 후행 어미로 취할 수도 있다. 다음의 (16)에서는 “어 놓다”의 뒤에 “어 두다”를 후행 어미로 써서 대비의 행위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어 놓다”가 “대비”를 직접적으로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문장이다.

(16)누군가 우울한 일로 윤을 찾으면 접어서 챙겨놓아둔 재미난 얘기가 씌어진 신문
쫄가리며, 꼬깃꼬깃한 메모지들을 꺼내와서 눈앞에 들이밀어주는 (기차는 7 시에
떠나네)

이상의 1)-4)에서 본 용례들은 기존의 논고에서 지적해 온 “대비”에 대해 의문점을 던져 준다. 이상의 사실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어 놓다”는 “대비”에 대해 중립적이라 한다.

3.2 유지를 나타낸다는 견해의 문제점

많은 논고에서는 “어 놓다”가 “어 두다”와 동일하게 “유지”라는 상 의미를 나타낸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다음의 1)-3)에서 제시한 문장들은 유지라는 의미를 재검토하게끔 하는 문장들이다.

1) “차츰차츰”과의 共起 가능

“유지”라는 상 의미는 어떤 동작이 완료된 다음의 단계를 나타낸다. 그렇다면 다음의 문장처럼 “차츰차츰”이라는 부사와 공기하는 문장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다음의 문장은 상태의 변화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이전 단계인 상태 변화의 進展을 나타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유지를 나타내는 문법 형식은 ‘차츰차츰’과 같은 부사와 공기하기 어렵다.

(17)바다가 차츰차츰 나를 바꾸어 놓고 있어. (슬픈 시인의 바다)

상태 변화의 진전은 “어 놓는 N” 형태를 취해서도 나타내고 있다.

(18)네, 아닙니다, 식으로 이루어진 짧은 통화를 마친 후 다시 수화기를 내려놓는 남자의 모습을 나 또한 얼떨떨한 기분으로 바라다보았다.(기차는 7 시에 떠나네)

2) 지속의 의미를 가진 수식 성분과의 共起 불가

“어 놓다”는 지속의 의미를 나타내는 수식 성분과는 공기하기 어려운 것 같다. 예를 들면 “당분간”이나 “-때까지”와 같은 시간의 길이를 나타내는 수식 성분은 다음의 문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 두다”와는 공기할 수 있으나, “어 놓다”와는 공기하기 어렵다.

(19)불안하겠지만 따로 사람이 없으니 당분간 네가 {*말아 놓아라 / 말아 두어라}.

(油谷 1979 : 8)

(20)누가 왜든 문을 열지 마.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문을 꼭 {*닫아 놓아라 / 닫아 두어라} (油谷 1979 : 9)

3) “어 있다”의 후행 어미

“어 놓다”의 문장 중에는 후행 어미로 “어 있다”를 취해, 지속(유지)을 나타내는 예가 있다. 즉 “어 놓다”가 직접적으로 유지나 지속을 나타내려면 후행 어미 “어 있다”의 형태를 취해야 한다. 다음의 문장에서 “어 놓여 있다”는 상태 변화가 산출되어 그 결과가 지속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21)크고 작은 고동색 향아리들은 뚜껑이 닫힌 채 어둠 속에 그대로 내놓여 있었다.
(기차는 7시에 떠나네)

이러한 문장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어 놓다”만으로는 지속을 나타내는 데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주어와 객체가 전체와 부분의 관계라면 “고 있다”를 취해서 지속을 나타내기도 한다.

(22)눅다시피 앉아서 창 바깥을 내다보고 있다. 더울 텐데 테오를 무릎에 올려놓고 있다. (기차는 7시에 떠나네)

(23)동경 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그리고 교포 북송 문제에서 여지없이 그 검은 손뿔을 드러내놓고 있다. (차 한 잔의 사상)

기존의 많은 논고에서 “어 놓다”를 지속이나 유지라는 상 의미를 나타낸다고 한 것은,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 ‘종이 두 장을 반듯하게 펼쳐 놓다’라는 행위가 완료된 후에는 그 ‘종이 두 장’은 펼쳐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24)돼지에게 잘 보이도록 글이 씌어진 종이 두 장을 반듯하게 펼쳐 놓았다. (제주도 이야기 1)

그러면, “어 놓다”가 아닌 일반 동사의 과거형인 경우와 비교해 보자. 여기에서도 (24)에서와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종이 두 장을 반듯하게 펼치다’라는 행위가 완료된 후에는 그 ‘종이 두 장’은 펼쳐 있는 상태이다. 이는 “펼치다”는 객체(종이 두 장)의 변화를 일으키는 동사이기에 그 행위가 완료한 뒤에는 그 변화의 상태가 필수적으로 남아 있게 마련이다.

(24)’ 돼지에게 잘 보이도록 글이 씌어진 종이 두 장을 반듯하게 펼쳤다.

따라서 “어 놓다”는 변화 후의 상태의 지속을 숨치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나타내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겠다.

3.3 “완료”를 나타낸다는 견해의 문제점

이기동(1979), 李美淑 (2002)은 “어 놓다”의 상 의미로서 “완료”를 지적했다.⁴ 양인중(2007:206)은 동작의 완료 혹은 완료된 상태의 지속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다음의 문장은 동작 과정에 중점을 두기 쉬운 단일 동

⁴ 이기동(1979)은 “완료”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상태 변화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즉 “완료”와 “상태 변화”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와 그 단일 동사의 “어 놓다”를 비교하는 예이다. (25)-(26)에서는 “어 놓다” (b)는 비문이 되고 있다. 이것은 “어 놓다”를 취하면 단지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25)a 논문 주제를 생각했다. 허나 마땅한 것이 떠 오르지 않았다.

b*논문 주제를 생각해 놓았다. 허나 마땅한 것이 떠 오르지 않았다.

(26)a. 잃어 버린 지갑을 찾았다. 그러나 찾을 수가 없었다.

b*잃어 버린 지갑을 찾아 놓았다. 그러나 찾을 수가 없었다.

이상으로 “어 놓다”의 뜻을 기존의 논고처럼 유지, 완료라는 상 의미라든가, 대비라는 양태 의미라고 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필요로 한다고 하겠다.

4. “어 놓다”의 선행 동사

“어 놓다”가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개별적인 의미는 “어 놓다”의 선행 동사의 어휘적인 의미와 관계가 깊다. 여기에서는 “어 놓다”의 의미 기능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수집한 용례(585 개)를 대상으로 “어 놓다”의 선행 동사를 분석한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어 놓다”의 선행 동사에 대해 언급한 바 있으나 기본적으로 타동사라는 지적만 있고 자세한 분석은 이루어져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장에서는 “어 놓다”의 선행 동사로는 어떤 동사가 있으며 그 동사들은 어떠한 분포도를 나타내는지 밝힌다. 그리고 “어 놓다”의 선행 동사간의 관련성을 밝히기 위해 선행 동사가 취하는 연어 구조와 의미에 따라 분류한다.⁵ 이러한 연어 구조와 의미에 의한 분류는 다음 장에서 논하는 “어 놓다”의 개별적인 의미간의 관련성을 생각하는 데에도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A: [N 로/에 N 을 V]⁶

B: [N 을 N 에서/로부터 N 로/에 V]

C: [N 을 V]

D: [N 을 V]

A 무리는 [N 로/에 N 을 V] 구조를 취하는 것으로서, ‘N(을)’은 위치 변화를 하는 대상이며, ‘N(로/에)’는 ‘N(을)’이 향한 곳 혹은 도착점을 나타낸다. B 무리는 [N 을 N 에서/로부터 N 로/에 V] 구조를 취하는 것으로서, ‘N(을)’은 위치 변화를 하는 대상이며, ‘N(에서/로부터)’는 ‘N(을)’의 원래의 위치 즉 출발점을 나타내고, ‘N(로/에)’는 ‘N(을)’이 향한 곳 혹은 도착점을 나타낸다. C 와 D 무리와 같은 구조로 보기 쉬우나, ‘N(을)’의 성질

⁵ 연어 구조와 의미는 奥田(1983)에서 배운 것이다.

⁶ N 로/에”는 “N 로/에/에게/에다”를 대표시킨 것이다.

이 다르다. C의 ‘N(을)’은 변화를 입는 대상이며, D의 ‘N(을)’은 동작이 이루어진 후에 만들어지는 것으로 처음부터 존재해 있는 것이 아니다.

수집한 용례를 대상으로 “어 놓다”의 선행 동사를 연어 구조와 의미에 따라 분류하고 각각의 무리의 출현도수를 나타내면 표 1 과 같다.

表 1 “어 놓다”의 선행 동사의 종류 및 출현도수

동사		리스트	출현도수
A	물체 이동	걸다, 걸치다, 깔다, 꽃다, 나열하다, 내다, 내리다, 놓다, 달다, 바르다, 버리다, 붙히다, 뿌리다, 쌓다, 올리다, 진열하다...	220
	사람 이동	내리다, 눕히다, 눕다, 도착하다, (발을)들이다, 밀다	18
	신체 부위 표출	(다리를)내리다, (손바닥을)내밀다, (이를)드러내다...	13
	소유권 주기	남기다, (돈을)내다, 맡기다	16
	소식/정보 전달	(의견을)내다, 말하다, 부탁하다, 시키다, 알리다, 지시하다...	44
	감정 부여/표출	(반항심을)남기다, (작품속에 성실한 마음을)쏟다...	7
	사회적 입장 변화	(영화계에 발을)들이다	4
	소계		
B	물체 이동	꺼내다, 내다, 드러내다, 들이다, 모이다, 옮기다...	12
	사람 이동	건지다, , 들여보내다, 들이다, 모으다, 몰다, 보내다, 부르다...	37
	소유권 이동	(돈을)내다	3
	소계		
C	생산	그리다, 기록하다, 만들다, 쓰다, 이루다, 적다, 짓다...	61
	행동 산출	저질르다, (미안한 것을)하다	4
	사고/판단 출현	갖추다, (추억을)만들다, (목표를)세우다, (예정을)잡다...	11
	소계		
D	양질 변화	닫다, 뒤바뀌다, 뻘질하다, 망치다, 묶다, 비우다, 빨다, 열다...	94
	감정/사고 변화	(마음을)뒤집다, (마음의 문을)열다	6
	事態 변화	(버릇을)고치다, (질서를)굳히다, (개념을)바꾸다...	20
	소계		
기 타		(액을)떠넘기다, 빼다, 연기하다, 제치다, 짚다, 찾다...	15
합계			585

표 1 에서 보듯이 4 종의 무리의 선행 동사는 균등한 출현도수를 보이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출현도수는 “어 놓다”의 의미 기능 및 문법화를 생각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언급 하겠다.

동사의 어휘적인 면에 있어서는, 표 1 에 있는 A-D 무리의 동사들은 전부 변화를 나타내거나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는 동사(타동사, 사동동사)들이다. 다음과 같은 (27)의 동사들은 언뜻 보기에는 동작 과정에 주목하는 동사로서 변화를 나타내지 않는 동사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

은 이러한 동사들도 동작 과정과 더불어 변화도 나타낼 수 있는 동사이다. 예를 들면 가.의 “소식/정보 전달”은 어떤 소식을 상대방에게 전달함으로써 상대방의 인식 상태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나. “사회적 입장 변화”는 사람의 사회적 지위, 입장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 (27)가. 소식/정보 전달: 말하다, 부탁하다, 시키다, 알리다
 나. 감정/사고 변화: (마음을)뒤집다,(마음의 문을)열다
 다. 사고/판단 출현: (추억을)만들다,(대책을)세우다,(예정을)잡다
 라. 사회적 입장 변화: (영화계에 발을)들이다

이처럼 변화에는 구상적인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視覺器官으로 경험할 수 없는 추상적인 변화도 있다. 따라서 “어 놓다”의 선행 동사는 기본적으로 변화를 나타내거나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타동사 혹은 사동동사라고 할 수 있다.

수집한 용례 중에는 ‘찾다’ ‘치다’와 같은 선행 동사의 예가 있다. ‘찾다’ ‘치다’는 변화를 나타내기 어려운 동사이데, “어 놓다”와 결합하여 일시적으로 변화 동사처럼 쓰인 것이라 볼 수 있다.

- (28)내가 머리카락도 안 보일 만큼 꼭꼭 숨어 살 방을 찾아놓을 테니까, 그건 내게 맡겨. (슬픈 시인의 바다)
 (29)사람을 치어놓고 도망치다니, 혹시 윤 기사가 뭘 착각한 게 아닙니까? (숨은 사랑)

5. “어 놓다”의 의미

5.1 “어 놓다”의 의미와 관련되는 본동사 “놓다”의 의미 추출

본고에서 인정하는 “어 놓다”의 의미를 제시하기 전에 보조동사 “어 놓다”의 의미와 관련되는 본동사 “놓다”의 의미를 지적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많은 논고에서 지적해 왔고, 또한 직감적으로도 보조동사 “어 놓다”의 의미는 본동사 ‘놓다’의 의미와 관련이 깊게 느껴진다. 그러기에 본동사 “놓다”의 의미를 확실히 잡고 갈 필요가 있다.

본동사 “놓다”는 ‘어떤 구체적인 대상물을 어떤 곳에 위치시킴’ 즉, “着地”라는 의미를 기본 의미로 가지고 있다.

- (30)사전을 책상 위에 놓다.

그리고, 본동사 “놓다”가 나타내는 의미인 “착지”는 [+순간성]의 동작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놓다”가 기본적으로 진행을 나타내는 “고 있다”를 취하기 어려운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⁷

⁷책이 한 권이 아니라 두 권 이상일 경우에는 이 표현이 가능하다. 또한 보조동사 “어 놓다”는 “고 있다”를 후행어미로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어 놓고 있다”(예,(22)(23))의 의미는 동작의 진행을 나타내는 “고 있다”와 다른 상 의미를 나타낸다.

(31)*책상 위에 책을 놓고 있다.

본동사 “놓다”가 [+순간성]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도 볼 수 있다. “놓다”는 ‘오랫동안’과 같은 지속성의 의미를 가진 부사와 공기하기 어렵다.

(32)*그는 미리 준비한 포도주 한 병을 책상 위에 오랫동안 놓았다.

보조동사 “어 놓다”가 [+순간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다음 문장에서도 엿볼 수 있다. ‘살리다’는 다의어로서 ‘죽어가는 상태에서 살 수 있는 상태로 구제하다’는 뜻으로 쓰일 수도 있고, ‘살아 있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일 수 있다. 즉, 동사 ‘살리다’는 순간적인 동작의 의미로서도 지속적인 동작의 의미로서도 쓸 수 있는 다의어이다.

(33)자식 지금 이 세상에 살아 있을 놈이 아니지. 기왕 살려{놓은/ *두는}것, 힘 닿는 데까지 도와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일이야. (숨은 사랑)

(34)오늘은 일단 살려 {두지만/*놓지만} 다음날 만나면 혼날 줄 알아 (손세모들 1996:176)

(33)의 ‘살리다’는 ‘죽어가는 상태에서 살 수 있는 상태로 구제했다’는 뜻으로 쓰여 있으며, (34)의 ‘살리다’는 ‘살아 있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어 놓다”의 선행 동사로는 지속적인 동작의 의미로 쓰인 (34)과 같은 동사는 부적합을 시사하고 있다. 유지의 뜻을 지닌 동사로서 “두다”를 들 수 있는데, “두다”는 “어 놓다”의 선행 동사로 취할 수 없다.

(35)*사진을 책상 위에 두어 놓다.

이상의 사실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어 놓다”는 상태의 지속이 함의되어 있을 뿐 상태의 지속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지는 않는다고 하겠다. 다시 말하면, 본동사 “놓다”의 [+순간성]이 보조동사 “어 놓다”에서도 남아 있어 “보유/지속”의 의미를 나타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보조동사의 의미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본동사 “놓다”의 의미로서, 일정한 장소에 어떤 구체물을 위치시킨다는 “着地”와 [+순간성]을 추출할 수 있다.

보조동사 “어 놓다”도 본동사와 같이 구체물을 일정한 곳에 위치시킨다는 구상적인 의미를 바탕으로, 행위, 사고, 상태에까지 미치는 의미로 추상화가 이루어진다.

기존의 논고에서는 본동사 ‘놓다’의 基本意를 “어느 한 위치에 유지시킴”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착지”가 완료된 후에는 필연적으로 그 곳에 존재하게 되는 예들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진을 책상 위에 놓다’라는 동작이 완료된 후에는 필연적으로 사진이 책상 위에 있는 상태가 지속하기 마련이다. 그것은 ‘놓다’가 客體變化動詞임에 기인하는 것임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면 客體의 變化를 나타내는 동작의 동사라면 “놓다”가 아니라도

이러한 필연적인 변화의 상태 지속이 뒤따르게 된다. 따라서 “놓다”가 결코 직접적으로 “유지”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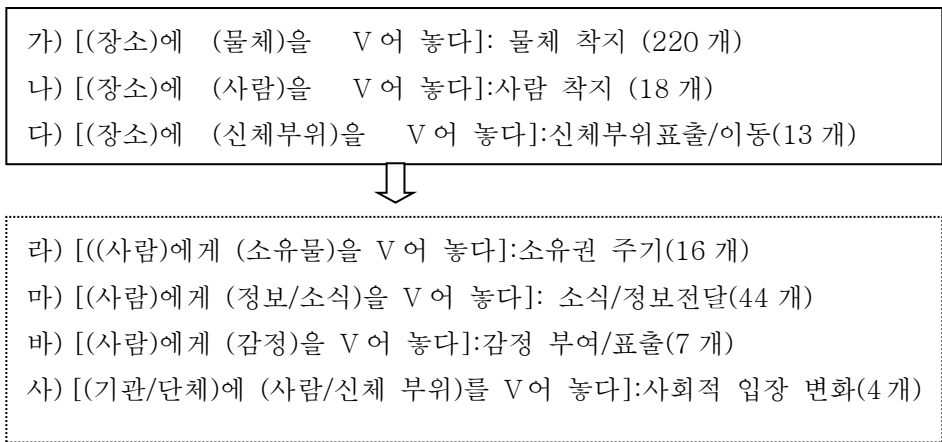
선행 연구에서는 “대비”의 의미가 “유지”의 상 의미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어 놓다”가 “유지”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본고의 견해에 의하면, “어 놓다”는 “대비”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5.2 “어 놓다”의 의미

“어 놓다”가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개별적인 의미는 그의 선행 동사의 어휘적인 의미에 크게 기인한다. 4.에서 보았듯이 선행 동사는 다양하나, 언어 구조와 의미에 따라 크게 4 종류로 분류된다. 그리고 그 4 가지의 무리는 “어 놓다”의 의미를 고찰하는데 그대로 반영이 된다. 1)-4)에서 보는 4종의 “어 놓다”의 의미에는 각각 구상적인 의미와 추상적인 의미가 있다. 본고에서는 추상적인 의미는 구상적인 의미를 바탕으로 추상화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본다.

1) A:위치 착지 산출 (322 개,55.0 %)

A 무리를 구상적인 뜻과 추상적인 뜻으로 나누어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A 무리의 구상적인 뜻(실선 부분)부터 보자. 가)의 위치 이동을 나타내는 동사를 선행 동사로 취하는 “어 놓다”는 “물체 착지”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36)에서는 ‘휠체어’를 계단이란 장소에 위치시킴을 나타낸다. 나)와 다)는 사람 혹은 인체의 한 부분이 한 장소에 위치시킴을 나타낸다.

(36)계단에 휠체어를 내다 놓고 앉아 있는 사람들. (기차는 7 시에 떠나네)

(37)그는 나를 빈의 시내 중심지인 그라벤에 내려놓고 혼자 야스코 기차를 만나러 갔다. (슬픈 시인의 바다)

(38)헤어질 때 지환은 미란에게 다가와서 미란의 머리에 손을 내려놓았다. (기차는 7 시에 떠나네)

이러한 구상적인 착지의 산출은 구상적인 물체가 이동하여 한 장소에 착지함을 나타낸다. 이 때 이동하는 물체와 착지하는 곳은 다 시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구상적인 것이다. 이러한 구상적인 의미는 라)-사)와 같은 추상적인 의미에 확대된다. 추상적인 의미를 나타낼 경우에는 이동하는 대상이나 착지하는 곳이 다 추상적이거나 어느 한 쪽이 추상적인 것이 대부분이다. (39)-(41)에서는 (39)은 집(소유물) → 우리, (40)은 행선지(정보) → 정문 안내실, (41)은 환멸과 반항심(감정) → 노동자 계급이라는 위치 이동이 행해지고 있다.

(39)잠자는 사이에도 늘 조금씩 어딘가가 무너지고 있던 집을 우리에게 남겨놓고 가는 일은 부친에게 어린애를 벼랑 끝에 두고 혼자 산을 내려가는(기차는 7 시에 떠나네)

(40)그래서 우리는 정문 안내실에다 행선지를 알려 놓고 회사 건너편 일식집으로 향했다. (숨은 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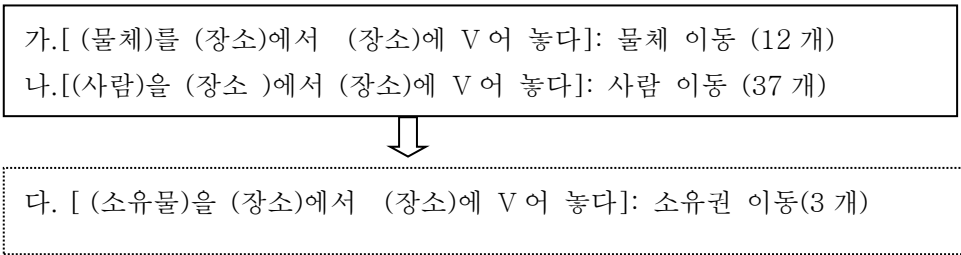
(41)오직 중산 계층에게만 지지를 얻었고 노동자 계급에게는 환멸과 반항심만을 남겨 놓았을 뿐이었다. (함께 걷는 이 길은)

A 무리의 선행 동사는 객체의 위치를 변화시키는 동사인데 출발점보다는 도착점에 중점을 둔 동사이다. “놓다”의 기본적인 의미는 이동 주체의 신체의 일부분에 지닌 것을 다른 곳에 위치시킨다는 뜻이다. 즉, 본동사 “놓다”는 출발점보다는 도착점에 중점을 둔 동사라 하겠다. 따라서 A 무리의 동사는 본동사의 의미가 제일 농후하게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수집한 용례에 의하면 “어 놓다”의 선행 동사 중에 가장 많은 것이 A 무리이며 전체수의 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⁸ 따라서 보조동사 “어 놓다”에는 본동사 “놓다”의 의미가 많이 남아 있다고 하겠다.

2) B:이동 산출(52 개, 8. 8%)

B 무리와 A 무리 사이에는 확실한 선을 그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B 와 A 는

다 이동을 나타내나, A 무리는 도착점에 중점을 둔 것이고 B 무리는 도착점 뿐만 아니라 출발점도 의식하는 동사라는 점에 차이점이 있다.



⁸작품에 따라서는 A 무리의 출현도수에 변동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고에서 나타난 출현도수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치라고 생각된다.

B 무리의 구상적인 의미로는 물체 이동과 사람 이동이다.

(42) 차문을 닫으려다가 가방에서 약제실에서 받은 하얀색 약봉투를 꺼내 차 안에 들여놓았다. (기차는 7시에 떠나네)

(43) 일부러 용술이를 읍내로 심부름 보내놓고는, 그날 밤에 덥혔다고 하대. (봄날 1) 이동 객체가 소유물이 되면 추상적인 이동인 소유권 이동을 나타내게 된다.

(44) 지금 이 시각까지 청주를 떠나지 못했다면 그곳 병원에서 환자를 내놓지 않았다는 뜻이다. (숨은 사랑)

B 무리는 A 무리와 같이 이동을 나타내는데도 A 무리에 비교하면 출현도 수가 적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놓다”의 의미와 관계가 깊다고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어 놓다”는 “놓다”라는 동사에서 보조동사가 된 것이나 1)에서 보았듯이 “어 놓다”에는 아직도 본동사의 의미가 많이 남아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본동사 “놓다”는 이동 주체의 신체의 일부분에 지닌 것을 다른 곳에 위치시킨다는 뜻이기에, 도착점에 중점을 두는 위치 이동 동사이기 때문이다.

3)C : 생산 (76 개, 12.9%)

가) [(물체)를 V 어 놓다]: 물체 생산 (61 개)



나) [(행동)을 V 어 놓다]: 행동 산출(4 개)

다) [(사고/판단)을 V 어 놓다]: 사고,판단 출현(11 개)

C 무리의 “어 놓다”의 구상적인 의미는 한 물체를 無의 상태에서 有의 상태로 만들어내는, 즉, 물체의 생산 산출을 나타낸다.

(45) 도장의 집 어느 종교인이 A 회관을 지어놓고 그 소감을 말한 이야기 한 토막이 생각난다. (차 한 잔의 사상)

(46) 사인펜을 들고 점선으로 이름을 쓴 뒤 조각칼로 점선을 따라 이름을 새겨놓았다. (기차는 7시에 떠나네)

물체의 생산 산출은 행동이나 사고에까지 확대되어 쓰여진 것이다.

(47) 미안한 짓 해놓고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해 더 화를 내버리고 마는 사이. (기차는 7시에 떠나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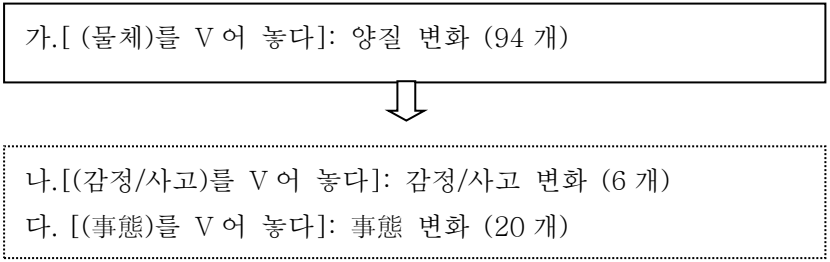
(48) 하지만 아무리 눈치코치 없는 시골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아무 대책도 세워놓지 않고 무조건 사경을 헤매는 중환자를 떠메고 상경하는 미련을 (숨은 사랑)

A 와 B 무리의 위치 이동 변화란 한 물건을 원래의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함을 뜻한다. C 무리는 無의 상태에서 有의 상태로 만들어냄을 뜻한다. 따라서 C 무리는 위치 이동의 개념에서 확대된 것이라 볼 수 있다. C 무리가 A 나 B 무리와 관련이 깊은 것은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도 확인된다.

(49)적은 겨울철에는 상점 주인은 보통 뒤 칸 방에 앉아 벽에 만들어 놓은 구멍을 통해 상점을 지킨다. (함께 걷는 이 길은)

(50)어린이들을 웬만큼 아무런 의지도 없는 어른으로 만들어 놓지 않고서는 악기를 연주하거나, 또는 그 어떤 것을 배우라고 강요할 수는(함께 걷는 이 길은)

4)D: 양질 변화 산출(120 개,20.5%)



D 무리의 구상적인 “어 놓다”의 의미는 한 물체의 성질이나 모양을 변화시킨다는 뜻이다.

(51)창과 문을 열어놓고 살기 때문에 그 내부의 생활 풍경을 감출 수 없다. (차 한 잔의 사상)

양태 변화 산출이라는 구상적인 의미는 감정이나 사고, 사태의 변화 산출에 확대된다.

(52)내가 알 수 없는 걱정이 미란의 마음을 뒤집어놓고 있는 모양이었다. (기차는 7시에 떠나네)

(53)그 신성함을 점차로 잃어가면서 제도적으로 확실히 지배 계층과 피지배 계층을 분리시켜놓으려 한 집단적 노력이기도 하였다. (한국 문학의 위상)

이기동(1979)은 이러한 양질의 변화의 바탕은 장소 이동의 개념에서 확대된 것이라 했다. D 무리는 어떤 것의 본래의 상태를 다른 상태에 있게 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이동 변화 산출은 생산 산출을, 더 나아가 양태 변화 산출에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은 “어 놓다”의 개별적인 의미를 보아 왔다. 이러한 각각의 개별적인 의미는 “상태 변화”라는 의미 아래에 통합할 수 있는 의미들이다. 이 상태 변화는 본동사의 의미의 “着地”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着地”는 어느 한 장소에 위치적인 변화의 산출인 것이다. 그리고 이 “着地”는 공간적인 “着地”를 바탕으로 심리적인 “着地”에 확대 추상화된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어 놓다”가 “대비”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 놓다”가 “변화 산출”을 나타내고 그 변화 산출은 [+의지성, +의도성]이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미 말했듯이 “어 놓다”가 직접적으로 “대비”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이상은 “어 놓다”의 선행 동사를 연어 구조와 의미에 따라 고찰한 결과

“어 놓다”의 각각의 선행 동사가 관계없이 나열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관계 속에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선행 동사의 분석을 통해 “어 놓다”의 의미 기능이 본동사 “놓다”와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밝혀냈고, “어 놓다”가 나타내는 개별적인 의미 기술을 가능하게 했으며, 개별적인 의미 간에 상호 관계성을 찾을 수 있었다.

6. 선행 동사와 “놓다”의 결합의 밀접

국어의 보조동사는 흔히 선행 동사와 후행 동사는 뛰어 쓴다. 그런데 위에서 본 용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실제 문헌상에 나타난 “-어 놓다”의 용례는 뛰어 쓰기가 행해져 있지 않은 것이 많다. 뛰어 쓰기가 행해져 있지 않은 용례가 전체의 반 이상이나 차지한다. 보조동사인 지 합성동사인 지 판단하는 기준은 그리 단순한 문제는 아니지만 뛰어 쓰기 여부는 외관상의 차이의 하나라 할 수 있겠다. “어 다”가 50%이상 뛰어 쓰기가 행해져 있지 않은 것에 대해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까?

表 2) “어 놓다”의 뛰어 쓰기 여부

	뛰어 쓰기×	뛰어 쓰기○	계
A 무리	173	149	322
B 무리	29	23	52
C 무리	40	36	76
D 무리	60	60	120
기타	11	4	15
합계	313(53.5%)	272(46.5%)	585(100%)

“-어 놓다”의 선행 동사 중에 가장 두드러지게 많은 것이 위치 이동과 관련된

동사이다. 국어의 위치 이동 동사는 동작의 과정에 중점을 두는 동사가 많은 것 같다. 위치 이동만으로는 일정한 장소에 위치함을 나타내는 데 다소 불안정하고, 이동의 과정을 나타내기 쉽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치 이동 동사가 보조동사 “어 놓다”와 결합함으로써 한 곳에 着地함을 확실히 나타낼 수 있게 된다. 위치 이동 동사와 “어 놓다”의 결합이 밀접함은 뛰어 쓰기가 거의 행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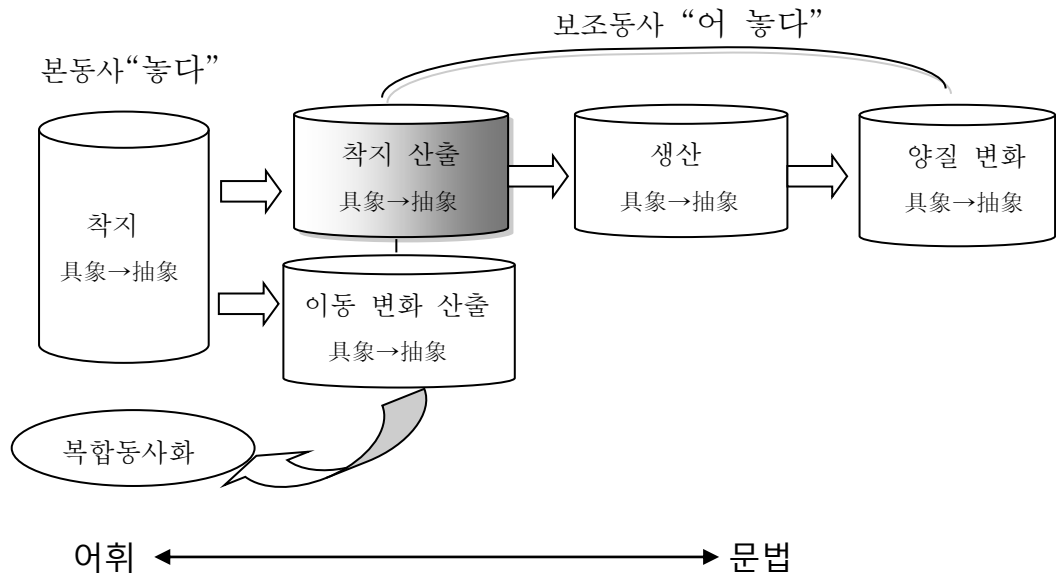
表 2)는 수집한 용례를 대상으로 동사의 무리별로 뛰어 쓰기가 행해져 있는가의 여부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뛰어 쓰기를 하고 있지 않는 것은 위치 이동과 관련된 동사뿐만 아니라 모든 동사의 무리 안에서 볼 수 있다. 이는 본동사의 의미와 가장 긴밀한 관계에 있는 A 무리의 “어 놓다”가 선행 동사와 후행 동사가 밀접히 결합함에 따라 붙여 쓰기가 습관화되어 다른 무리의 “어 놓다”까지 뛰어 쓰기가 행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위치 이동 동사+ 놓다” 중에는 ‘늘어놓다’ ‘들여놓다’ 등 복합동사로 전

이한 것도 있으나 이것은 “어 놓다”의 의미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착지”의 의미가 위치 변화 동사를 선행 동사로 취하기 쉽게 했으며, 그 결과 “위치 변화 동사+ 놓다”의 사용 빈도를 높게 하여 보조동사의 통어 구조에서 복합동사라는 어휘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늘어놓다’ ‘들여놓다’ 등에서도 “놓다”의 보조동사 의미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엄밀히 말하면 완전히 복합동사로 전이되었다고 하기 보다는 복합동사에 근접해 있다고 해야 좋을 지도 모른다.

7. 결론— “어 놓다” 의미의 전체상

본고에서는 “어 놓다”의 의미를 “변화 산출”이라고 했고 그 변화 산출의 개별적인 의미를 선행 동사와 관련지어 자세히 분석하고 기술했다. 마지막으로 이상에서 지적한 내용을 도식화하여 정리한다.



참고 문헌

<한국어>

- 강현화(1996) 「‘동사+어+동사’구성의 여러 유형과 그 다단계성」 『국어문법의 탐구Ⅲ』 태학사
- 김기혁(1996) 「보조동사의 문법범주」 『국어문법의 탐구Ⅲ』 태학사
- 박선옥(2005) 『국어 보조동사의 통사와 의미 연구』 도서출판역락
- 손세모돌(1996) 『국어 보조동사 연구』 한국문화사
- 이기동(1979) 「조동사 ‘놓다’의 의미연구」 『한글』 163 한글학회
- 李美淑(1999) 「한국어의 「~어 놓다」「~어 두다」와 일본어의 「~しておく」 대조연구」 『日語日文學研究』 35 韓國日語日文學會
- 임호빈·홍경표·장숙인 공저(1997) 『신개정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문법』 연세대학교 출판부
- 호광수(2003) 『국어 보조동사 구성 연구』 도서출판역락

<일본어>

- 秋元実治 (2002) 『文法化とイディオム化』 ひつじ書房
- 李 京保2004 「シテアル形に関する一考察」 『日本研究教育年報』 8号
東京外国語大学日本課程・留学生課共編
- 李 京保2007 「~テアル」 文の構造及び意味用法」 『日本研究教育年報』 11号
東京外国語大学日本課程
- 李 美淑(2002) 「日本語の補助動詞—「~ておく」の場合」 『国文学解釈と鑑賞』 7月号、p.141-148
- 大場美穂子(2005) 「補助動詞「おく」についての一考察」 『教育研究論集14号』 p.19-33 東京大学留学生センター
- 奥田靖雄1983 「を格の名詞と動詞とのくみあわせ」 言語学研究会1983
言語学研究会 1983 『日本語文法・連語論 (資料編)』 むぎ書房
- 許宰碩(2007) 「日本語の「しておく」について—韓国語의 「hae nohda/duda」 との対照の観点から—
- 許宰碩(2009) 「日本語의 「~してある」と「~しておく」について—韓国語의 「해 놓다」「해 두다」 との対照의 観点から—」 『日本学報』 81
- 益岡隆志 1987 『命題の文法』 くろしお出版
- 笠松郁子(1993) 「「~しておく」を述語にする文」 『ことばの科学6』 p.117-139
むぎ書房
- 鈴木重幸(1972) 『日本語文法・形態論』 むぎ書房
- 関由眞(2010) 「補助動詞[~てみる]의 意味的共通基盤をめぐって」 『日語日文學研究』 73 韓國日語日文學會
- 山崎 恵(1991) 「「~ておく」의 意味構造」 『富山国際大学紀要 VOL. 1』 p.16
1-175 富山国際大学
- 山崎 恵(1992) 「「結果相」의 表現に関する一考察 —「~ている」「~てある」「~られている」「~られてある」—」 『富山国際大学紀要 VOL. 2』 富山国際大学
- 山崎 恵(1996) 「「~ておく」と「~てある」의 関連性について」 『日本語教

育』 88号、p.13-24 日本語教育学会
油谷辛利 (1979) 「「-어 놓다」と「-어 두다」の意味分析」 『朝鮮學報』
91, 朝鮮学会

<중국어>

楊人從(2007) 『韓語語法 虛辭篇』 明文書局股份有限公司

용례 출전

결혼과 성/기다리는 불안/기차는 7시에 떠나네/봄날 1/숨은 사랑/슬픈 시인
의 바다/연필을 잡으면 그리고 싶어요/제주도 이야기1/차 한 잔의 사상/한
국 문학의 위상/함께 걷는 이 길은

【中文摘要】

補助動詞「어놓다」意義之研究

補助動詞「어놓다」在以往的研究當中,被認為表示著時相之意義與心理態度之意義。在時相之意義上,含括著[維持],[保有],[持續]等意義,而心理態度之意義上,則具有著[準備]之意義。此般時相之意義與心理態度之意義,與補助動詞「어두다」具有相同的意義機能。換言之,在以往的研究當中,是將補助動詞「어놓다」,視為與「어두다」具有著相同的意義機能。

因此,本稿中針對從作品採集之實例加以分析,對「어놓다」之意義加以研究並記述。在本稿中,舉出在以往的研究中所指出的時相之意義與心理態度之意義亦無法加以解釋之實例,釐清以往研究之問題所在。同時,也提出在本稿中所發現之「어놓다」之意義—「變化之產出」。所謂“變化之產出”,乃是從本動詞「놓다」之基本意義擴張,抽象化而成之意義。由於「어놓다」具體上是表示何等之「變化之產出」,與其前接動詞(接在「어놓다」前面的動詞)之語彙上意義有很深的關連,筆者透過手上的資料,進行前接動詞意義之分析。透過前接動詞之分析,筆者得以釐清了「어놓다」之意義與本動詞「놓다」之間密切的關係,同時,亦記述了「어놓다」個別之意義。此外,對於「어놓다」所表示之各個個別的意義之間的關係也得以深入探討,對於「어놓다」之意義也能有整體之掌握。

キーワード: 「어 놓다」、補助動詞、「變化之產出」、本動詞、前接動詞